

- 02 나중에 전화할게요
- 04 가족편지 "지금 제 마음을 전합니다"
- 06 그림으로 보는 뉴스 : 잠수함
- 08 사진으로 보는 뉴스 : 2019 상반기
- 10 부서탐방 : 조림
- 12 우리동네 지도 - 둔덕면



둔덕면 지도

이번 호 숨은그림 전망을 촬영해 보내준 사우 20명은 주점을 통해 문화상품권(만원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010-9477-9544 카톡 또는 문자로 숨은그림 전망 사진과 사우 성명, 소속, 연락처를 함께 송부

우리 가족 여가시간에 어디로 갈지 둘러보고 숨은그림 찾기도 재미있어요!

숨은그림 : 지렁이, 열쇠, 카메라, 수박, 모자



내다.
밥은 먹었나?



네. 아버지는요?



먹었지.
일은 잘하고 있나?



네.....
지금 조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버지

“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

가족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 한번 하기 어렵네요.
어쩌다 전화해도 몇 마디 못하고 금세 끝납니다.

올해 1월 입사하고 첫 출근한 날.
저보다 더 긴장하고 기뻐했던 아버지.
자식이 어떻게 일하는지 걱정돼 전화하셨는데,
저는 “잘 하고 있다”는 짧은 한 마디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해 마세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일이 흥미진진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현장에서 수십 년째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더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아들 영학 올림



* 올해 입사한 정영학 사우(특수선전장설계부)
가족 얘기를 담았습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정낙진 반장(조립4부)께 감사 드립니다.



아들 영학이에게

넌 예전부터 입텔 게 없던 착한 아들이었지.
3년 전, 아픈 엄마를 위해
거제에 있으려고 우리회사 면접을 봤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공채가 중단됐지만
엄마를 떠나 보낸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올해 다시 입사를 했구나.

아버지가 38년을 몸 담고 있는 회사에
아들이 들어오다니.
조선소 일을 가업처럼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구나.

말수는 적지만 속이 깊은 우리 아들.
네 진심을 이렇게 전해주시니 고맙고,
역시 우리 아들이란 생각이 든다. 사랑한다.

- 아버지가

사보를 가족에게 전해준 사우 30명
(협력사 포함)에게 10만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 참여 기간 : 2019년 7월 5일(금)까지

▶ 참여 방법
가족과 가족지 보는 사진을 카톡이나 문자로 송부
•연락처 '010-9477-9544'로 친구 추가
*DSME가족지'는 회사 '홈페이지(www.dsme.co.kr)
→ 홍보센터 → 웹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바빠서, 쑥스러워서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지금 전합니다.



딸아들, 응원한다.

김태근 특수선PM1부

민주야, 네 취직 소식은 어버이날 최고 선물이다. 3년 동안 아나운서 시험 면접에 떨어져도 끝까지 도전한 우리 딸이 자랑스럽구나. 예찬아, 네가 첫 외박 나왔을 때 PX에서 외할머니, 엄마, 아빠 선물을 사오는 모습이 잘 자랐구나 감사했다. 너희들을 응원한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조나리 해양배관설계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손 편지로 마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첫째는 전라도, 둘째는 경상도, 셋째는 경기도에 산다는 핑계로 생일날 모바일 쿠폰으로 케이크를, 어버이날 인터넷 배송으로 카네이션을 전하네요.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보~ 약속할게요

이승목 기계의장부

가정에 보탬이 되고싶다며 출근하는 여보에게 고맙고도 미안하고, 또 많이 배웁니다. 약속할게요. 술 많이 마시지 않기, 건강 챙기기, 가정에 충실하기. 내 생애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준 그대를 누구보다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꼭 100수 하세요

문경보 블록운반부

어머니 약속하يس. 적어도 꼭 100수 하يس. 그 옛날 솔뚜껍에 쑥 버무리 밀개떡 만들어 막내아들 먹이시던 그 모습은 자꾸 멀어져 가는데... 98세 동안 고생만 하신 어머니, 꼭 100수는 하세요.



우리는 7형제

이종인 선박도장1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중 제일은 바로 형제간 우애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7형제가 매년 모여 지난 시절을 추억하고 또 다른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변치 말자고~!



음경식 TCO CM부

사진 속 미소만큼 행복한 일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진덕수 진화마린

저도 이제 야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응원해준 아버지(오른쪽 검은색 양복) 감사합니다.



류연동 상량기업

아버님, 어머니! 며느리 생일이라고 옷 사준다면 쇼핑한 날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 제게 부모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 항상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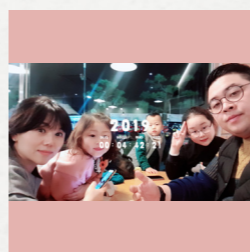
김종호 선박기장배관설계부

신혼여행을 취소했더니 아이 키우느라 해외여행을 10년 넘게 못 갔네. 그러다 다녀온 광. 가족이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해. 다음엔 유럽?



항민철 선박탑재2부

당신이 4월부터 부산에서 일하니 가리기 생활에 그리움이 큼니다. 하루 빨리 조선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도 한 집에서 지내길!



정훈 해양탐재부

"결혼해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 줄게"라고 했던 거짓말쟁이 남편을 사랑해주고 고마워.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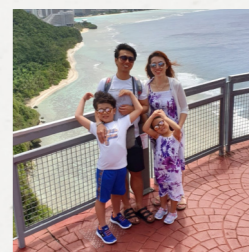
이상철 해양영업설계1부

연우야. 말로만 듣던 동생이 생겼네? 동생에게 잘 해주 고맙구나. 사랑한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자.



박찬순 해양배관설계부

21개월간 영국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 홀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해.



김민우 TCO CM부

날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한 아내, 태어나줘서 고마운 우리 아들, 딸~ 사랑한다.

* 사내 신문 해오름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모했던 가족 편지와 사진을 소개합니다. 지면상 다 게재하지 못하지만 많은 참여를 해준 사우와 가족들께 감사 드립니다.

1987~2001

우리나라와 DSME 잠수함 역사 서막

- 한국 첫 잠수함인 장보고 I 사업 수주(9척)
- 독일 하데베조선소에서 1번함을 건조하며 기술을 배워 2번함부터 야드에서 건조

2006

우리나라 최초 해외 창정비 사업 수주

- 독일 하데베조선소가 건조한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우리회사가 창정비

2008

장보고 II 사업 수주(3척)

2011

우리나라 최초 잠수함 수출, 최대 방산수출 금액 기록

-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3척 수주
- 세계 다섯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오름

2012

우리나라 첫 독자 설계 잠수함 건조

- 장보고 III 사업 1,2번함 수주
- 우리나라 최초 3,000톤급 잠수함
- 대다수 기자재 국산화, 최첨단 기술 탑재

2019

세계적 잠수함 명가 재증명

-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추가 수주
- 독일 등 전통 잠수함 강국을 제치고 계약 성사

회사 잠수함 수주 실적

· 새 잠수함 건조 20척

국내 14척
(우리나라 잠수함 21척 중 67% 수주)

해외 6척

· 잠수함 창정비* 28척

* 창정비란? 약 6년 주기로 조선소에 들어와 장비나 부품을 점검해 수리하고 교체하는 사업

잠수함 상식

Q 50명이 20일이나 물 속에 있는데 숨은 어떻게 쉬나요?

A 잠수함에는 3주간 쓸 수 있는 산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숨 쉬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정화장치로 걸러 다시 산소로 만듭니다.

Q 창문도 없는데 앞은 어떻게 봐요?

A 잠수함이 물 속에 들어가면 돌고래나 박쥐처럼 음파로 움직이는 물체나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Q 잠수함은 어떻게 잠수해요?

A 앞 뒤의 빈 공간에 물을 채워 잠수합니다. 물 양을 조절해 떠오르거나 가라앉습니다. 물고기 부레와 같습니다.

잠수함 성능

최대 시속
37km

최대 탑승 인원
50명

최대 잠수 기간
약 3주

길이 83 m, 폭 9.6 m,
중형차 15대 주차 가능 크기

2019년 상반기

수조시설 공식 선보이며 '기술 DSME 재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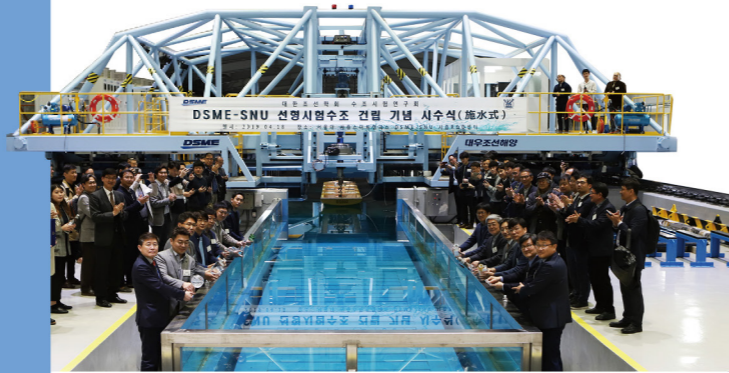
회사는 초일류 기술로 시장 판도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합니다. '기술DSME'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시흥R&D센터 건립이 그 시작입니다. 이 센터는 지난해 12월 문 열어, 핵심시설인 '예인수조'를 외부에 공식 선보이는 행사를 4월에 가졌습니다.

예인수조는 바다를 축소한 실험시설입니다. 실제 배 크기의 1/40되는 모형 배를 띄운 후 인공 파도를 일으키며 다양한 해상 조건을 실험합니다. 여기서 성능을 더 높일 배 모양을 연구합니다. 최근 회사는 옥포 야드에도 다양한 실험센터를 짓거나 확장하며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시흥R&D센터

예인수조는 아래 길쭉한 건물 안에 있음. 건물길이가 100층 짜리 아파트 높이와 같음. 시흥R&D센터에는 선박 추진 성능 높일 공동수조, 잠수함 연구시설, 친환경 선박 연료 관련 연구 시설 등이 있음.

4월 APRIL



2 예인수조

위 사진 너머로 길이 300m, 너비 16m, 깊이 7m의 수조가 펼쳐짐. 국내 최대 규모.



3 모형제작

수조실험을 위해 모형선박을 제작하는 3D프린터실, 기계가공실, 도장실 등이 있음.



4 스마트십 기술실험센터

가상현실(VR)로 미래 선박 모델을 보여줌. 왼쪽 터치 테이블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사 배 위치를 볼 수 있음. 시흥R&D센터에 있음.



5 옥포 야드에도 다양한 연구설비 개설

옥포 야드에는 용접자동화·도장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실험설비를 비롯해 LNG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 슬로싱(탱크 내부 액체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 연구센터 등이 있음.



드릴십 모두 주인 찾고 하나씩 인도

소난골 드릴십 2척의 인도서명식이 3월 15일, 5월 17일 각각 열렸습니다. 주인 없던 또 다른 드릴십 1척도 4월 30일 노르웨이 노던드릴링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인도와 매각 대금은 회사 현금흐름에 도움을 주며 경영정상화 기틀을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MARCH

이성근 사장 취임

이성근 사장이 3월 29일 회사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했습니다. 이 사장은 1979년 대우조선공업 입사 이후 선박해양연구소장, 중앙연구소장, 기술총괄, 조선소장 등을 역임한 생산기술분야 전문가입니다. 취임 후 경영정상화 달성, 기술 DSME재건, 관리의 고도화, 인재경영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빠 일터 '조립부'야~

저희 집엔 중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이 4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립4부로 부서 이동한 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궁금해하네요.
특히 레고 블록 조립을 좋아하는 막내 준우가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 DSME가족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이창건 차장 조립4부



01 생산의 시작 : 가공→조립

조립 부서는 도면에 그려진 배를 실제 철판으로 만드는 '생산의 시작'에 가까운 곳이다. 철판을 모양에 맞게 자르는 첫 일은 가공부에서 해. 조립 부는 가공부에서 철판을 보내주면 이를 용접으로 이어 붙여 배 블록을 만드는 일을 한단다. 레고처럼 작은 블록(구조물)을 합치고 합쳐 거대한 배를 만들거든.



02 12개 공장에 3,800명 근무

조립공장은 모두 12개야. 그 안에서 3,800여명이 일해(협력사 포함). 부서는 모두 5개야. 조립1·3부는 평평한 블록, 조립2·5부는 곡선이 있는 블록을 주로 만들어. 아빠가 일하는 조립4부는 석유를 캐내는 해양 플랫폼을 맡는데, 요즘엔 선박 물량이 많아 그쪽 블록도 만들지.



03 낮밤으로 로봇과 함께

조립공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로 일해. 일할 때는 여러 장비를 사용한다. 용접할 때는 용접기나 단다·캐디 등 용접로봇을, 무거운 철판을 들 때는 지게차나 크레인을 써. 지금도 더 쉽고 빠르게 일하도록 여러 기계를 연구소와 함께 개발하고 있지.



04 취부·용접·운반 등 다양한 일

조립 일은 매우 다양하다. 조립 도면 이해하기(도면 독도), 도면 보고 실제 크기를 바닥에 표시하기(마킹), 바닥 표시와 도면에 맞춰 조립품 설치하기(심출), 부재나 조립품을 도면에 맞춰 가용접하기(취부), 기계를 이용해 용접하기, 5mm 정도의 오차까지 확인하기(정도관리), 철판과 조립품을 단계에 맞춰 옮겨주기(배재, 운반) 등이 있어. 이 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를 만들 블록을 완성할 수 없으니 모두 중요한 일이지.



05 1년에 80만톤 생산, 45척 건조로 이어져

조립공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1년에 80만톤의 철판을 블록으로 만든단다('19년 계획 기준). 80만톤이면 육지에서 가장 크다는 코끼리 13만 마리 무게만큼 되지. 이렇게 완성한 블록은 사외에서 만든 블록과 함께 선박 45척을 만들어낸단다('19년 인도 기준).

승우, 서연, 현서, 준우야. 아빠와 함께 조립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들이다. 아빠 회사가 세계적인 조선소로 유명한 이유는 이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야. 어때? 아빠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니?

